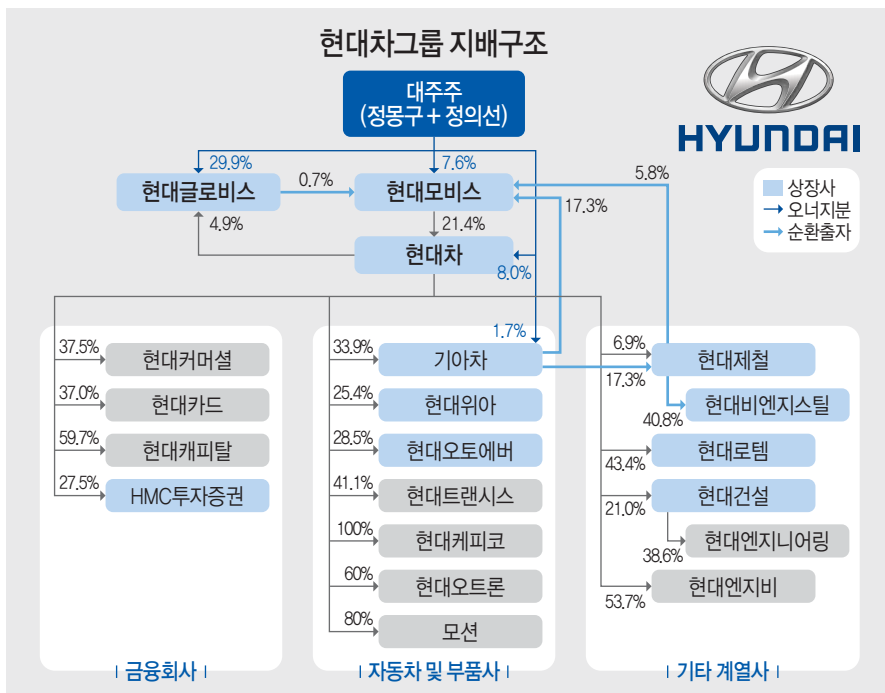


현대차, 지배구조 주목... '투 비스' 순환출자 해소 열쇠

(글로벌·모비스)

모비스 투자·모듈, AS 인적분할 두 법인 상장유지 '유리한 방안' 글로벌·모비스 지분교환 할 듯 "모비스 성장비전 명확해 저야 지배구조 개편 과정 원활할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신입회장 체제하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떠오르며 일부 그룹주가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목표주가도 잇따라 상향됐다.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따라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계없이 일부 그룹주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은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로 압축된다.

◆지배구조 개편=경영권 승계+순환출자 고리 해소

현재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17.3%)→모비스 ▲기아차(17.3%)→현대제철(5.8%)→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차 ▲현대차(4.9%)→글로벌(0.7%)→모비스(21.4%)→현대차 ▲현대차(6.9%)→현대제철(5.8%)→모비스(21.4%)→현대차 등 4개로 압축된다. 각각의 계열사들이 그룹 주요 3사의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회장은 가진 지분은 현대차 2.6%, 기아차 1.7%, 현대모비스 0.3%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지분을 23.29% 보유 중이다. 정 회장은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리한 방안은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가 주주 반대로 무산됐던 2018년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투자부와 모듈·AS 사업부사로 인적분할해 두 법인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후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벌 지분과 현대모비스 모듈·AS 사업부사 지분을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주환원을 의식한 개인투자자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 2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데다 정 회장 역시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 회장 취임이 공식화된 지난 14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벌 주식을 각각 2963억원, 441억원씩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 8위다.

투자부문 지분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주환원을 의식한 개인투자자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 2년 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데다 정 회장 역시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 회장 취임이 공식화된 지난 14일부터 전 거래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벌 주식을 각각 2963억원, 441억원씩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2위, 8위다.

◆핵심은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 입장에서 현대차의 최대주주이자 그룹주 최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선 현대모비스의 실적 개선과 성장 동력 가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의 가치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정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현대글로벌과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

모비스 분할 후 합병, 주식 교환, 외부매각 등 어떠한 형태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현대글로벌 지분 가치가 상승할수록 오너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단기적으로 현대글로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된 이후로는 현대모비스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성장비전이 명확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현대오트모와 현대엔지니어링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어 눈여겨 보라"고 권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를뿐더러 그 방법 역시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기업 대부분이 부진한 주가흐름을 경험했던 것을 복기했다. 그는 "당분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현대차그룹 주가는 이벤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오너가 보유한 주식의 강세와 현대모비스의 약세 현상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기업 88%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

사람인, 기업 265개사 대상 조사 26% '무인화트렌드에 직접영향'

사회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AI)이나 기계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무인화'도 함께 확산되는 추세다. 유통가에서는 이미 '키오스크'를 활용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장 등의 생산라인에서 자동화도 빨라지고 있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에서 기업 265개사를 대상으로 '무인화 시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코로나19 이후 무인화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최근 산업 전반의 무인화 트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6%였다. 영향으로는 '인건비 등의 절감' (43.5%, 복수응답)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고용규모 축소(34.8%) ▲건축 비용 부담 증가(29%) ▲무인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29%) ▲기업의 생존 위협(24.6%) 등이 있었고, '기존 직원 감축' 기업도 23.2%였다.

응답 기업의 67.2%가 '무인화로 인력이 필요 없어지면서 고용이 축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고용충격이 예상되지만, 무인화 도입에 찬성(65.3%)하는 기업이 반대(34.7%)보다 많았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 통한 수익개선' (57.8%, 복수응답)을 무인화의 가장 큰 수혜로 보았다.

/이현진 기자 ihj@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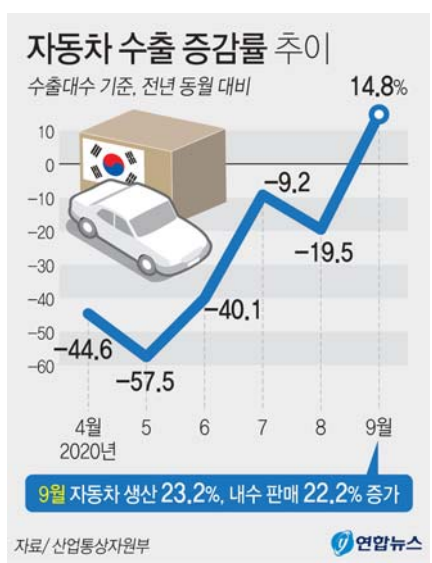
(23.2%) (22.2%) (14.8%)

산업부, 9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 내수·수출증가... 생산 34만2489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 산업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은 +23.2%, 내수 +22.2%, 수출 +14.8%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자동차 내수 증가세 회복과 수출 동반증가에 따라 차 생산이 늘었고, 특히 중·대형 세단과 SUV 생산이 확대



되면서 지난 달 34만2489대를 생산했다. 차종별 SUV는 19만5000대

(35.5% ↑), 대형세단은 2만9000대(53.3% ↑), 중형세단 2만2000대(7.3% ↑)로 증가했다.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급증과 신차효과, 영업일수 3일 증가 등으로 16만2716대가 판매됐다.

지난달 국산차는 13만7771대 팔려, 내수 판매 비중은 국산차가 84.7%(+1.8%p)로 커진 반면, 수입차는 15.3%(-1.8%p)로 줄었다.

특히, 베스트 셀링카 톱5(1위 그랜저, 2위 카니발, 3위 쏠렌토, 4위 아반떼, 5위 K5)를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 대수는 그랜저가 11만3810대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용수 기자 hys@

굿바이카,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 추진

>> 1면 '사용 후 배터리...'서 계속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요리 등에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

전국 지자체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를 보관 중이며,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기차는 폐차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재사용 가치나 성능·안전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쌓여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도 70~80% 정도 효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나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형기업들은 2년의 실증기간에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한다.

/양성운 기자 ysw@

이재용, 이달 말 다시 재판... 삼성, 경영공백 어쩌나

22일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공판 26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공판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말부터 다시 재판에 돌입한다. 삼성도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공판준비 기일을, 26일에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이후 9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불법 승계 관련 재판도 이번 공판준

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측은 그렇다할 증거없이 기소를 강행했으며, 이 부회장 스스로가 피해를 줬다며 모순적인 배임혐의까지 추가한 바 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이번 달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불법 승계 관련한 다음 달 본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다.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본격화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1년간 수감 생활뿐 아니라 검찰에 10여 차례 소환되고 80여차례 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경영에 힘을 쏟지 못했다.

그나마 올 초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후부터 다시 경영에 힘을 쏟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부문 독립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소재 확보와 지원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체질 개선과 평택캠퍼스 투자 확대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IBM과 엔비디아 등에서 최신 반도체 생산을 수주하는데에도 공이 컸다고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